

국제행사 개최 매년 ‘고배’ 유치 전략 재점검 필요하다

APEC·세계유산위·2028년 유엔해양총회도 실패
“정치적 고려·제주 매력 저하 등 원인 분석 나서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유치에 실패한 데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와 유엔해양총회 유치도 연이어 고배를 마시고 있다.

국제 행사 유치 과정에 중앙 정치권의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제주가 국제 행사 개최지로써 매력을 잃은 것인지 철저한 원인 분석과 전략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최근 굵적굵직한 국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나서왔지만 매년 낙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가 도전장을 내민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개최지는 지난 10일 경쟁 도시인 부산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의 역시 지난해 제

도가 유치에 나섰지만 부산에 밀리면서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두 행사는 모두 이재명 정부 들어 개최지 선정이 이뤄졌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주도가 공을 들인 APEC을 경북 경주에 내줬다. 제주는 인천과 함께 분산개최에 만족해야 했다.

2028년 유엔해양총회도 제주는 2027년과 2028년에 사전·특별행사 개최로 아쉬움을 달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최도시 선정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총회와 연계한 사전·특별행사 등의 일부를 개최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주 APEC과 마찬가지로 제주도가 개최지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대신 일부 관련 행사를 분산 개최하는 방식이 다시 적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주요 국제 행사 개최지

선정을 위해 별도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선정위원회가 정치적 고려 없이 개최지 선정에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일단 선정 과정에 신뢰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의 경우 제주도는 유네스코 5관왕을 달성한 반면, 세계유산이 없는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되는 등 제주 입장에서는 선정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 홀대론이 제기된 바 있다.

제주는 과거 6차례의 정상회담과 12차례의 장관급 이상 국제회의 등을 개최하며 국제회의 도시로 이름을 알렸다. 풍부한 국제회의 경험, 다채로운 문화·관광 자원, 온화한 기후, 안전한 보안·경호 여건 등은 제주의 강점이지만 이제는 그 명맥이 퇴색될 것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제주의 경쟁력을 잘 이어나가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큰 자산이 된다는 점을 정부에 적극 알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부미원기자 bu8385@ihalla.com



제17회 거문오름 트레킹이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 기간 평소 출입이 금지된 용암길에 탐방객을 맞는다. 한라일보 DB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트레킹 13~17일 열일곱 번째 행사 “1만년 세월이 빛은 신비로움 만끽하세요”

평소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신비로운 공간인 거문오름 용암길이 닷새간 잠긴 문을 연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위원회 주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후원하는 ‘제17회 거문오름 트레킹’이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의 여정을 이어간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와 구좌읍 덕천리에 걸쳐 있는 거문오름은 제주를 대표하는 오름 중 하나로 분화구에는 깊게 패인 화구가 있으며 그 안에 작은 봉우리가 솟아 있다. 모양은 북동쪽 산사면이 터진 말굽형 분석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

약 8000년 전에서 1만년 전 사이에 화산활동으로 형성됐으며 김녕굴, 만장굴, 뽕뒹굴 등 일대 용암동굴계를 형성한 모체로 알려져 있다. 거문오름 주변에 발달된 용암동굴의 규모와 연장길이, 동굴 생

성물 등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2007년에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올해는 탐방객 편의를 위해 시작 시간을 기존 오전 9시부터 오전 8시로 1시간 앞당겼다. 입장은 오후 1시에 마감되며 출발 전 탐방안내소에서 안전 안내를 받고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입장할 수 있다.

트레킹은 태극길과 용암길 두 개 코스로 운영된다.

태극길은 분화구 내부와 정상부능선을 따라 걷는 코스로, 정상코스(2.1km·1시간)와 분화구코스(5.0km·2시간30분), 능선코스(6.7km·3시간30분) 가운데 고를 수 있다. 원하는 탐방객에게는 세계자연유산 해설사가 동행해 거문오름의 생성 과정과 지질·생태적 가치를 설명한다.

행사 기간에만 열리는 용암길

(6km)은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흘러간 길을 따라 걷는 약 3시간30분 코스다. 해설사 동행 탐방을 원하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30분 간격으로 함께 걸을 수 있다.

용암길 종점에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까지는 무료 셔틀버스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14일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거문오름 풍물단의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행사 기간에는 SNS 인증, 무료책 나눔,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이벤트들도 운영된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평소 개방되지 않는 용암길을 직접 걸으며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의 자연·지질학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말했다. 오소원기자

서귀포시 가로수 행정 국민투표 후보 올랐다

산림청 전국 우수사례 공모전 전국 8곳 11~14일 온라인투표

서귀포시 가로수 행정 우수사례가 국민투표 최종 후보에 올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귀포시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6년 가로수 조성·관리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8개 지자체 가운데 3위(평가점수 93.8점)의 성적으로 국민투표

대상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종 후보에 오른 지자체는 서귀포시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세종시, 충북 청주시와 음성군, 전남광주 순천시, 경북 경주시와 포항시 등 8곳이다.

서귀포시는 ‘시민참여 실명제와 가로수 수간주사로 가로수 관리 혁신’이라는 주제로 공모에 참여해 창의성·적극성·효과성 등 전 분야

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혁신 사례는 가로수마다 번호와 QR코드를 부착해 가로수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병해충 방제 시 약제 비산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나무에 직접 약제를 주입하는 수간주사 방식을 도입·운영한 내용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초등생 극단적 선택 시도 은폐 의혹… 4면 / “돌고래 보호 규정 무용지물”… 5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식품 구매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활용하세요!

식약처에서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로 구매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접속 방법

- 1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 2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국민 안전이 기준입니다
YOUR SAFETY IS OUR STANDARD

이 광고는 한국연구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통해 실시되었습니다.